음원 사재기 의혹 다룬 '그알' 후폭풍 거세

'바이브'(왼)와 '뉴이스트W'가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해명 인터뷰 미공개와 명예훼손을 제기하며 방송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음원 사재기 의혹을 파헤친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의혹의 대상이 된 가수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난해 가수 박경으로부터 사재기 의혹을 '공개 저격' 당한 남성 듀오 바이브 등이 소속된 메이저나인은 5일 장문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전날 방영분에는 의혹에 반발하는 회사 측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메이저나인은 "저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명한 내용이나 방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전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자료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6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용 중 단 3장면(만 방영됐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방송 내용은 마치 저희가 진행했던 마케팅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겉치레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재기 업자를 통해 음원 사재기를 진행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게 편집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발라드 가수, 인디 가수,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신인 가수는 음원을 내고 아무런 홍보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바이브측 "인터뷰했지만 의혹 해명 안나와"
플레디스 "뉴이스트 명예훼손, 심각한 피해"

이 회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제공한 해명 자료 요지를 일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가온차트 월간 1위 곡 제작사에 직접 들어오는 권리사 정산금이 2억~2억 5,000만원인 데 비해 음원 평균 제작비는 ▲ 디지털 싱글 6,000~8,000만원 ▲ 미니앨범 1억~1억5,000만원 ▲ 정규앨범 2~3억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음원 시장에서 발생하는 제작사의 매출(권리사 정산금)로는 소위 '사재기 작업 비용'을 지불할 경우 전 플랫폼에서 월간 1위를 해도 제작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도 방송 과정에서 소속 그룹명이 사재기와 연관된 것처럼 노출되자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신이 듣지 않은 음원 구매 내용이 있었다는 한 일반인 남성의 인터뷰와 함께 이메일 화면이 방송을 탔는데, 이 과정에서 플레디스 소속 보이그룹 뉴이스트 유닛(소그룹)인 뉴이스트W 이름과 곡명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플레디스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연관 지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년간 노력해온 아티스트에 방송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과 억측과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제작 과정 실수 인정과 사과, 다시보기 등 정정을 방송사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치열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세계

뷰티 소재 드라마 '터치'…주상욱·김보라 주연

빗더미에 내몰린 완벽주의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데뷔에 실패한 10년차 아이돌 연습생이 만나 새로운 꿈을 찾는다.

채널A는 배우 주상욱과 김보라가 주연을 맡은 뷰티 소재 드라마 '터치'를 소개했다.

치열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계를 그리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메이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4명 주연 배우의 다양한 로맨스를 담았다.

극 중 까칠한 성격의 주인공 차정혁 역을 맡은 주상욱은 3일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터치' 제작발표회에서 "매일 메이크업을 받지만 직접 해본 적은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아내(차예련)의 얼굴을 빌려다가 연습하면서 사이도 약간 어색해진 것 같다"라며 너스레를 떨던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 신경을 썼고, 보시는 분들도 거기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JTBC 'SKY 캐슬'('스카이 캐슬')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보라는 아이돌 '센터'를 맡기엔 살짝 어딘가 부족한 연습생 한수연 역을 연기한다.

김보라는 '스카이 캐슬'과 비교해 "'터치'는 따뜻하고 귀여운 드라마"라며 "밝은 면을 자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민연홍 PD는 "메이크업 소재를 이렇게 깊이 다루는 드라마는 없었다"며 "조언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해서 리얼한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했다. /연합뉴스

빅뱅, 승리 빼고 4인조로 돌아온다

4월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 첫 무대

그룹 빅뱅이 전역 후 첫 공식 무대 소식을 알리며 복귀 행보에 전격 시동을 걸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이 오는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출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첼라 페스티벌 측이 SNS에 발표한 라인업에 따르면 빅뱅은 4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른다.

빅뱅은 지난해 승리 탈퇴 이후 4인조로 재편됐다. 지드래곤·태양·탑·대성 네 멤버 전역 후 선보이는 첫 공식 무대가 될 전망이다.

리더 지드래곤은 지난해 10월, 태양과 대성은 11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으며 탑은 지난해 7월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

이들 네 멤버가 전역 후 빅뱅 이름으로 한 무대에 오르다는 것은 향후 그룹으로서 활동을 이어간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빅뱅은 2006년 데뷔 이후 10년 이상 최정상 아이돌 그룹으로 군림했다. 최근에는 전 멤버 승리가 '버닝썬 스캔들'로 탈퇴하는 등 멤버들을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타격도 봤지만, 본격적으로 컴백 활동에 나서면 가요계에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코첼라 페스티벌은 1999년 시작돼 매년 20만~30만명 관객이 참가하는 대형 음악 축제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트래비스 스콧, 프랭크 오션, 캘빈 해리스, 라나 델 레이 등 유명 스타들이 올해 라인업에 포진했다.

지난해에는 YG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한편, 힙합 그룹 에픽하이도 올해 코첼라 페스티벌에 출연한다. 에픽하이는 오는 4월 12일과 19일 출연하며, 지난 2016년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코첼라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에이핑크·골든차일드·우주소녀
아이돌 그룹 이달 초 단독 콘서트

아이돌 그룹들이 새해 초 잇따라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에게 훈훈한 시간을 선물한다.

올해 10년 차를 맞은 걸그룹 에이핑크는 다음 달 1~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여섯 번째 단독 콘서트 '웰컴 투 핑크 월드'를 연다.

지난해 1월 열었던 '2019 핑크 컬렉션 : 레드 & 화이트' 콘서트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의 단독 콘서트. 예능, 연기, 광고 등 활발하게 개인 활동을 하는 에이핑크 멤버들의 완전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6일 팬클럽 선예매가, 8일 일반 예매가 진행된다.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에이핑크가 오랜만에 콘서트로 돌아오는 만큼, 직접 기획 과정에 참여하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10인조 보이그룹 골든차일드는 오는 18~19일 용산구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단독 콘서트 '퓨처 앤 패스트'를 연다.

골든차일드

2017년 데뷔 후 처음 여는 단독 콘서트로, 지난달 18일 선예매와 20일 일반 예매에서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중 합작 13인조 걸그룹 우주소녀의 단독 콘서트 '오블리비아테'도 2월 22·23일 양일간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우주소녀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로, 그동안 그룹이 선보인 몽환적 음악 세계관을 집약하는 무대를 펼친다. /연합뉴스

BTS, 골든디스크 음원 부문 대상

방탄소년단(BTS)이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4일 오후 5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들은 32~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문에서 두 차례 대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음원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상식에 불참한 방탄소년단을 대신해 상을 받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이사<사진>는 "뜻깊은 골든디스크 음원 대상 주인공인 방탄소년단,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더 큰 결실을 이뤄갈 것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와 20년 전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데뷔한 지 7년이 된)방탄소년단이 13년 뒤에도 나랑 같이 웃으며 음악 얘기를 할 수 있고 계속 음악을 사랑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방 대표가 대신 읽은 편지에서 "우리 노래를 사랑해주는 전 세계 아미 여러분 늘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작자상을 받기도 한 방 대표는 최근 대중음악계 현실을 염두에 둔 듯 뼈있는 수상소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9년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작자로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을 통감한 한 해이기도 했다"면서 "이 책임을 모두가 나눠서 짊어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음악 산업 종사자, 음악 팬, 언론 모두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아티스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며 "인간은 인간이기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빛나는 존재"라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6일 (음력 12월 12일)

子 48년생 공돈이 생기는 운세 좋은 날이다. 60년생 만사형통하는 길일이다. 72년생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84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대업을 이룬다.

丑 49년생 모처럼 일신이 편안하다. 61년생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정을 받는다. 73년생 나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85년생 최소한 투자한 만큼의 결실은 보겠다.

寅 50년생 경사가 겹치는 날이다. 62년생 야심가는 기대해볼만한 날이다. 74년생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86년생 참고 인내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길하다.

卯 51년생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63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5년생 허세를 부리면 낭패를 보겠다. 87년생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辰 5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64년생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76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88년생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한다.

巳 41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53년생 화려하지만 위험한 유혹이 있겠다. 65년생 수고는 많지만 실속이 적다. 77년생 빈 수레가 더 요란한 법이다.

午 42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54년생 망신수가 있으니 과음하지 말라. 66년생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 78년생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未 43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55년생 혼자보다 둘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 67년생 한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 79년생 사랑이 꽃 피는 날이다.

申 44년생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56년생 저 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68년생 몸은 고달프나 보람은 있겠다. 80년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酉 45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57년생 교분이 넓어지니 좋은 사람을 만난다. 69년생 아직은 세상에 나설 때가 아니다. 81년생 짝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戌 46년생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58년생 선행이 오히려 난처한 일의 씨앗이 된다. 70년생 뜻밖의 행운이 기다린다. 82년생 하는 일 없이 바쁘기만 하다.

亥 47년생 혼자서 모든 일은 다할 수는 없다. 59년생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라. 71년생 의리를 지키면 반드시 보답이 있겠다. 83년생 실력보다 저평가 받는다.